성능·디자인 신차 수준으로 변화
레인지로버 벨라 2021년형 출시



친환경 파워트레인과 신규 인테리어를 적용해 매력을 더한 레인지로버 벨라 2021년형.
사진제공 |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재규어 랜드로버 코리아(대표 로빈 콜건)가 엔진 성능, 인테리어, 편의사양을 대폭 강화해 신차급 변화를 준 레인지로버 벨라 2021년형을 출시했다.

실내 사양 변화를 살펴보면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을 처음으로 적용했으며, 기존 로터리 방식의 기어는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토글 방식으로 바꿔 개성을 더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PIVI Pro'도 탑재했다. SOTA(Soft Over The Air) 기능을 통해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도 언제나 최신 상태의 소프트웨어로 차량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사용이 편리한 티맵 모빌리티의 T맵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된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레인지로버 벨라 2021년형 P400 모델에는 랜드로버가 직접 개발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MHEV) 기술이 적용된 신형 인제니움 3.0리터 I6 가솔린 엔진이 적용됐다. 트윈 스크롤 터보차저와 더불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를 통해 작동하는 전기 슈퍼차저를 함께 탑재해 토크 응답성이 더욱 빨라졌고, 터보렉도 획기적으로 줄였다. 가격은 9520만~1억1460만 원(개별소비세 인하분 적용)이다. 원성열 기자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칸' 해외 공략 박차

쌍용자동차는 4월 출시되어 국내외 픽업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칸의 수출 확대를 통해 해외시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렉스턴 스포츠(현지명 무쏘)는 이달 중순 영국 자동차 전문지 디젤카&에코카 매거진이 선정한 '2021 올해의 톱 50 자동차 어워즈'에서 3년 연속 '최고의 픽업 '에 선정되며 상품성을 입증받았다. 쌍용자동차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을 5월부터 뉴질랜드, 칠레, 호주, 영국 등 주요 해외시장에 차례로 선보였으며, 적극적인 현지마케팅으로 해외시장에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린카, 업계 최초 '아이오닉 5' 서비스 시작

그린카가 카셰어링 업계 최초로 아이오닉 5(익스클루시브 트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린카 고객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서울의 12개 그린존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총 30대를 증차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린카의 아이오닉 5 증차는 그린카 ESG경영의 일환이다. 그린카는 지난 3월 환경부 주최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K-EV100)' 선포식 참여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차량으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으며 그 출발이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첫 번째 전기차인 아이오닉5 증차다.

원성열 기자의 CAR & TRACK | 볼보 PHEV 모델 'XC60 T8 인스크립션' 시승기

'XC60 T8', 고성능+친환경 동시에 품다

제로백 4.9초…총 405마력 강력
최대 26km 순수 전기 주행 가능
첨단 안전기술로 장거리도 편안



볼보 XC60 T8 인스크립션은 제로백 4.9초의 고성능을 누리면서, 순수 전기모드로만 26km를 주행할 수 있는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매력적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전기차의 친환경성과 뛰어난 연료 효율성, 고성능 파워트레인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퍼포먼스, 중형 SUV의 뛰어난 공간 활용성, 압도적인 안전사양.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차가 있다, 바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모델인 볼보 'XC60 T8 인스크립션'이다. 전기차 활성화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비록 올해부터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수입 중형 SUV 중에서는 현존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다재다능함을 갖춘 XC60 T8 인스크립션의 매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서울에서 양평까지 왕복 120km 구간에서 볼보 XC60 T8 인스크립션 모델을 시승했다.

●고성능차와 전기차 두 가지 매력 한 번에

XC60 T8 인스크립션은 전기차의 친환경성 및 쾌적한 주행 감성과 고성능 모델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XC60 T8 인스크립션은 수퍼차저와 터보차저가 결합된 가솔린 엔진, 65kW 전기모터, 11.8 kWh 리튬이온 배터리로 구성된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통해 총 405마력(가솔린 엔진 318마력+전기모터 87마력)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순수 전기모드로도 주행 가능한 친환경차량이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제로백 4.9초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XC60 T8 인스크립션이 가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최대토크가 발휘되는 구간도 상당히 넓다. 가솔린 엔진은 2200~5400rpm 구간에서 40.8kg·m의 최대토크가 발휘되며, 전기 모터는 0-3000rpm 구간에서 24.5kg·m를 발휘해 출발~고속 주행까지 어떤 영역에서 가속 페달을 깊숙하게 밟아도 터보렉을 느낄 수 없는 쾌적한 가속감을 누릴 수 있다. 공차중량이 2185kg으로 무거운 편이지만 가속 반응은 차체 무게를 잊게 할 정도로 빠르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의 제로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파워와 순발력을 가졌다.



볼보 XC60 T8 인스크립션 내부

지상고가 높은 SUV지만 고속 코너링에서도 서스펜션이 탄탄한 덕분에 좌우 롤링의 양이 크지 않아 다루기 쉽고, 중저속에서는 코너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정도로 편안하게 세팅되어 있다.

주행 모드는 하이브리드(Hybrid), 퓨어(Pure), 상시 사륜구동(Constant AWD), 파워(Power), 개인(Individual)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매력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퓨어 모드를 작동하면 11.8kWh 리튬이온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을 경우 최대 26km까지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할 수 있다. 출퇴근 거리가 26km 이내라면 매일 기름 한 방울 쓰지 않고 출퇴근이 가능하다. 다만 급속 충전은 사용할 수 없고, 완속 충전기에서는 완충에 3시간 가량이 걸린다. 3kWh를 충전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 가정용 완속 충전기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어 집에서도 220V로 충전할 수 있다.

연비는 어떨까. 전기 모드로 26km 주행을 마치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하게 된다. 하이브리드 모드로 국도 40%, 고속도로 60%로 구성된 약 100km 구간에서 기록한 실연비는 13.9km/L였다. 틈틈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갖춰, 전기 모드 주행 구간을 늘릴 수 있는 사용자여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점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다. 저속 충돌을 방지해주는 시티 세이프티, 최대 140km/h의 설정 속도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파일럿 어시스트 II', 도로 이탈 완화 기능 및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 등 최첨단 안전기술이 모두 장착되어 장거리 여행에서도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메타버스서 쏘나타 N 라인 시승…실화냐?

현대차, '제페토'와 컬래버레이션
가상세계 확장해 MZ세대와 소통

메타버스에서 신차를 만나보고 시승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현대자동차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제트(NAVER Z)의 '제페토'와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쏘나타 N 라인을 시승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혼합현실을 말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는 사용자(개인)를 표현하는 아바타를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며 놀이, 쇼핑, 업무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다, 제약없이 자유롭게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MZ세대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현대차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 내 인기 맵(공간)인 다운타운과 드라이빙 존에서 쏘나타 N 라인을 시승할 수 있도록 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구현된 쏘나타 N 라인.
사진제공 | 현대차

현대차는 쏘나타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노출시켜 앞으로의 잠재 고객인 MZ세대와 소통을 활발히 하는 동시에 차량의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브랜드로서 이미지를 확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쏘나타를 매개체로 MZ세대가 주된 사용자인 가상세계 플랫폼까지 고객경험을 확장해 신기술을 선도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며 "향후에도 차종을 확대해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섹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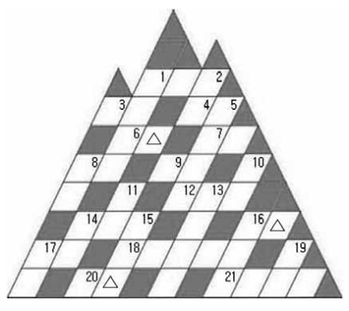
	4	9				7		
			9		7	5		1
5	7			8				3
	1			9			8	
		4	2		3	1		
	9			6			7	
7				5			1	4
9		8	3		4			
		1				8	3	

2		9		3		1		5
			4		8			
5			9		1			3
	2	5				8	9	
1								6
	9	6				7	1	
7			8		9			1
			7		2			
8		4		1		9		7

■ 스도쿠정답

9	3	8	6	2	7	1	5	4
7	5	2	1	4	3	8	6	9
4	1	6	5	9	8	3	7	2
2	6	7	3	1	4	5	9	8
3	8	5	9	7	6	4	2	1
1	4	9	2	8	5	6	3	7
6	7	3	4	5	1	9	8	2
5	9	4	8	6	2	7	1	3
8	2	1	7	3	9	2	4	5

■낱말문제



■가로열쇠

01.같은 학급의 학생. 03.시장기를 면할 정도로 음식을 먹음. 04.등급·정도가 같음. 06.한 가지 꾀·책략. 07.소·말 등이 한 살 된 것. 08.꽃이 피었다는 소식. 09.바로 급소를 맞히는 총알. 12.저승의 길 입구에 있다는 거울. 14.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뜻. 16.비가 올 때 손에 들고 머리 위에 받쳐서 비를 가리는 우비. 17.배·비행기·차 등의 흔들림을 받아서 일어나는 어지럼증. 18.언제나 될지 그 기한을 알지 못함. "ㅇ지ㅇ세ㅇ" 20.대나무 줄기 속의 안벽에 붙은 아주 얇고 흰 꺼풀. 21.사물에 대한 감동이나 느낌이 한이 없음.

■세로열쇠

01.형제자매는 한 몸과 같음. 02.생기 있게 살아 움직임. 05.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 08.꽃을 심기 위해 만든 꽃밭. 10.가면극, 인형극, 줄타기, 땅재주, 판소리 따위를 하던 직업적 예능인을 통틀어 이르던 말. 11.여럿 가운데 첫째가는 것. 13.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뜻. "ㅇ전ㅇ사" 14.음식의 썩 좋은 맛. 15.조선 말기에 팔도의 보부상들을 관장하던 단체. 16.자기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자처하는 느낌. 17.장대처럼 멀쑥하게 크기만 하고 멍청한 사람. 19.어린 무.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푼 다음 △칸을 이어놓으면 산 여러분이 아시는 산 이름이 됩니다.

